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7(4): 1~10, 2019. 12. https://doi.org/10.14700/KITLA.2019.37.4.001

『임원경제지』「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통해 본 전통조경공간 설계 시공방법

이정한

㈜건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A Study on the Design & Construction Method of Traditional Landscape Space through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the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Lee, Jung-Han

Executive Vice President, KUNIN E&C Architects & Planners Co., Lt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ign & construction methods of the traditional landscape space of the past and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s to maintain it today. To this end, the method of narrative description, process extraction and construction related to traditional landscaping were compared to each other based on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analyze at the description methods of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and related processe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landscaping.『Imwongyeongjeji』「Seomyongji」was an encyclopedia of the overall construction method of the living space, describing the location, effect,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omponent and presenting quantitative figures to institutionalize the construction of traditional landscaping spaces.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presented the entire process of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and it is becoming a kind of guide for reference at the site. Among them, foundation construction, roof construction, landscape construction, and fence construction were drawn as items that could be applied to traditional landscaping areas.

Second, the traditional landscape space construction method was divided into the processes of foundation construction, roof construction, landscaping construction, and fence construction. Foundation construction is a way of repeating the process of land-tramping.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roof, the tile-roofed building was built on top of the rafters and roofed with tiles. And thatched roof was made to a number of rice straws bundles to cover the roof one after the other. Instead of tiles, the stone roof was made of thin and wide stones, and the wooden boards were used for the single roof and the bark roof were constructed with many layers of dried corrugations. Landscape construction mainly consists of the Paving technique through tramping rubble and the construction of terraced flower by planting stone, plants, and shrubs on the top. According to the building materials, the wall construction was derived from the earth-stacked earthen wall, stone walls using stone and clay, marble walls made of tile patterns, and the construction of a board wall using a wood board as a wall.

Third, comparing the construction methods of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Imwongyeongjeji』「Seomyongji」focuses on standardizing the construction methods to create a new traditional spa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tting of the scope of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the construction because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provides the overall construction procedure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cultural heritages. In addition, the traditional landscape space used to be a residential space in the past, but today, the maintenance process of the already established facilities a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has been carried out, and construction

†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Han, KUNIN E&C Architects & Planners Co., Ltd., Yeonseoro 530, Eunpyeong-gu, Seoul, South Korea, Tel.: +82-2-385-3832, E-mail: jhan4455@naver.com

methods have been added to create viewing conditions. In terms of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ome similar methods were found in the repair of cultural assets today, and some cases were also confirmed in the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technologies such as application of some materials or mix, separation of added facilities and introduction of efficient construction methods.

Key words: Construction Garden, Foundation Work, Roof Construction, Traditional Knowledge, Wall Construc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거 전통조경공간의 설계 및 시공과 오늘날 이를 유지 계승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및 정비 등의 시공방법을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서술방식,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 추출, 시공방법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서술방식 및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을 살펴본 결과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생활공간 전반의 시공방법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서로 구성요소별 시공방법의 사용처, 효과, 장·단점을 서술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전통조경공간 시공의 제도의 보급을 목적으로 삼았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의 공정 전반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기초공사,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이 전통조경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전통조경공간 시공방법을 기초공사와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의 공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기초공사는 지반을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지붕공사 중 기와지붕 조성은 서까래 위에 산자를 설치하고 기와를 쌓았으며, 초가지붕은 볏짚을 여러 다발로 묶어 차례로 지붕을 덮었다. 석판지붕은 기와 대신 얇고 넓은 돌을 사용하였으며, 너와지붕은 나무판자를, 굴피지붕은 건조시킨 굴피를 여러 겹으로 깔아 조성하였다. 조경공사는 주로 잡석다짐을 통한 포장기법과 여러 단을 조성하고 상부에 석물이나 화초나 관목 등을 식재하는 화계 시공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담장공사는 쌓는 재료에 따라 흙을 다져 쌓은 토담, 돌과 진흙을 사용한 돌담, 기와로 무늬를 만든 영롱담, 널판을 벽면으로 사용하는 판장 시공 등이 도출되었다.

셋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시공방법을 비교해보면,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전통공간의 신규 조성을 위한 시공방법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 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시공 절차를 제공하여 시공의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과거 전통조경공간은 일상거주공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서 기 구축된 시설의 유지관리 공정이 이루어지며,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공방법이 추가되었다. 전통지식의 계승 차원에서 과거의 시공방식은 오늘날 문화재 수리에도 일정 부분 유사한 방법들이 확인되며, 일부 소재나 배합방식, 후대 추가된 시설의 구분, 효율적인 시공방식의 도입 등 전통기술을 재구성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주제어: 기초공사, 담장공사, 전통지식, 정원조성, 지붕공사

Ⅰ. 서론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활동의 산물'을 의미하며 농업,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서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한다[2]'라고 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전통지식의 계승과 확산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또한 유전자원의 전통지식 보호, 지적재산의 법률적 보호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으나[3][4][5], 이들은 대부분 기술 그 자체의 행위에 집중하며, 실제 전통기술이 적용된 실체가 전해지는 공간적 측면의 접근은 많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 분야는 전통지식과 연계한 공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조경공간에서의 전통지식 관련 연구가 용이한 학문이라 하겠다. 그동안의 전통조경 연구는 대부분 전통정원의 조영이론 및 사상, 위치비정, 공간구성 추정, 경관요소의 추출 등 문헌분석 중심의 조경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전통조경공간에서의 수리나 보수 등의 공정에는 문화재수리업체나 건축분야의 시공업체가 주로 시행하여 조경시공 분야가 전통조경공간 조성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통공간의 계승, 전통지식의 전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제도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전통조경공간의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자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도

록 시행해야 한다는 모호한 방침만이 언급되고 전통조경시설의 외형만을 유사하게 재현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조성되었던 시설들보다 내구성이 약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설분야의 설계시공에서 직무능력표준 등 평준화된 제도화에 치우치면서 오랫동안 숙련된 장인이 전수자를 양성하는 일본의 도제식 교육방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전통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은 오랜기간 동안 축적되고 숙련된 기술의 집적에서 그 정체성과 우수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의 계승은 단순히 옛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전통조경 분야에서는 전통지식이 고안된 배경과 목적, 재료와 기법, 이에 따른 효과 등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적절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 전통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대표적이다. 『임원경제지』는 농업 중심의 백과사전식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중 「이운지(怡雲志)」, 「상택지(相宅志)」, 「섬용지(贍用志)」는 주거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조경 분야에 전문기술서로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상이나 공간구성, 경관요소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이운지나 상택지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었다[6-9]. 반면 섬용지 관련 연구는 주로 복식과 서지학 연구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10][11]. 섬용지는 건축제도에서부터 구조, 도구, 소재 등을 수록한 것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법과 적용실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과거 전통조경공간의 시공방법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의 계승 관점에서 과거 외부공간 조성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과 오늘날 문화재, 즉 전통조경공간에서 수리나 보수정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설계와 시공방법을 함께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거 전통조경공간을 설계·시공하는 방법을 전통지식의 하나로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승 차원에서 오늘날 문화재 공간에서 시행되는 전통조경공간의 수리·보수 공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임원경제지』「섬용지」의 국역본[12]과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13]에 기록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연구의 재료로 삼았다.

이들 토대로 『임원경제지』「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항목 중 조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공정을 비교함으로써 전통조경공간의 설계 및 시공방법을 추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서술방식과 전통조경 분야의 적용

『임원경제지』「섬용지」는 『열하일기』, 『금화경독기』, 『증보산림경제』, 『다능집』, 『왕씨농서』, 『왕씨화원』, 『천기잡록』, 『거가필용』, 『삼재도회』, 『산림경제보』 등을 토대로 가옥의 배치부터 생활공간 전반의 시공방법에 대해 총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섬용지」에서는 가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국의 제도를 우선 소개하고, 이를 조선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실제 가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하였으며, 중국의 제도 중 선용할 기법들을 선별하여 제언하였다.

일례로 『열하일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중국의 가옥 제도는 모두 일자형으로 사람의 곧바름이 집에 나타난다고 기록한 반면, 조선의 제도는 방과 마루, 행랑채, 무를 구부려 ㅁ자, 日자, 二자 등 다양한 형태로 ① 지붕마루 굴절에 의한 빗물의 누수, ② 비좁은 안마당, ③ 배수 불량, ④ 환기 불량, ⑤ 화재피해 우려 ⑥ 방음 불량을 꼽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국의 사례로 물받이 기와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 중국 남쪽 지방의 산모퉁이나 물굽이의 빈터를 찾아서 집을 짓는 경우에는 가옥 제도가 어쩔 수 없이 꺾어서 짓거나 붙여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천공개물(天工開物)』과 『고금비원(古今秘苑)』에서 모두 물받이 기와(지붕과 지붕 사이의 물도랑이 합해진 곳에서 낙숫물을 받는 기와)를 논하고 있다. (중략) 가옥을 세우는 것은 지세를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탄하고 넓은 땅에 가옥과 부속 건물을 서로 붙여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꺾어 짓되 다만 물받이 기와에 특별히 유의하여 많은 빗물을 받아도 물이 넘치거나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옳다[12].

또한 각 구성요소별 유형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시공방법을 사용처와 시공방법에 따른 효과, 장·단점과 함께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시공기법에는 장, 길, 치, 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일련의 시공과정을 제도화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수리원칙을 제시하고 총 21개 항목에 문화재 수리 공정 전반을 포함하였다. 각 시공 공정에는 일반사항에 적용범위와 용어정리, 재료, 조사, 해체, 시공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임원경제지』「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구성과 서술방식을 비교해보면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가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시공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리·보수하는 시공방법에 대한 지침서로서 가옥 외에도 문화재 전반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가 설정되었으며, 문화재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참고해야 할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닌다(Table 1). 이중 조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은 기초공사, 지붕공사, 조경공사, 기타 담장공사 등이 확인되었다.

Table 1. A Comparison of the Detailed Sections of the 『Imwongyeongjeji』「Seomyongji」 and the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Division	『Imwongyeongjeji』「Seomyongji」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Detailed Construction Section	Layout of House	-
	Foundation of House	Foundation Work
	Scale	-
	Put on a Roof	Roof Construction
	Ondol	Ondol Construction
	Plastering	Plastering
	Windows and Doors	Windows and Doors Construction
	Wood Floor	Interior Finishing Work
	Kitchen	-
	Garden	Landscaping Work Other Works(Paving)
	Storeroom	-
	Stable	-
	Toilet Shed and Headrace	-
	Wall	Other Works(Wall)
	Well	-
	-	General Common Things
	-	Temporary Work
	-	Stylobate Work
	-	Carpentry Work
	-	Brick Work
	-	Iron Work
	-	Stone Work
	-	Stonework Construction
	-	Castle Construction
	-	Dancheong(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Work
	-	Ruin Maintenance Work
	-	Plant Protection Work
	-	Conservation Work

A Shading in Tables is a Process Corresponding to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2. 전통조경공간 시공 방법

1) 기초공사 시공

임원경제지 섬용지에는 달구로 지반을 다진 이후 평탄하게 땅을 깎은 뒤 일층 또는 2-3층의 대를 쌓고 그 위에 다시 벽돌을 쌓은 뒤 바윗돌을 다듬어 가장자리를 두르는 중국의 제도를 앞서 소개하였다. 조선의 제도 또한 달구로 땅을 다지는 데, 반장(약 1.5m) 가량을 파고 물을 뿌린 뒤 흙을 다지는 과정을 예닐곱 차례 반복하여 견고히 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조선의 기초공사는 땅을 다진 뒤 주춧돌을 놓고 왜소한 계단석을 쌓아 집에 습기가 드는 사례가 많으며, 주춧돌의 크기가 각기 다르고 주춧돌 놓는 방법이 일정치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주춧돌을 사용할 경우 하부에 빗물이 스며들어 흙이 얼었다가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집 전체가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석대를 여러 층 쌓고 벽돌을 깔아 그 위에 주춧돌을 놓는 방식을 제언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땅을 다지기 위한 도구로 손달고, 나무달고, 원달고, 몽둥달고 등이 제시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대적인 연장이나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터파기는 주로 매장문화재 발굴에 해당하는 공정이며, 땅 고르기는 자연지반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토면 또는 동결심도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후 나무말뚝이나 모래, 잡석 등을 사용한 지정(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 방법)과 판축지정(토사판축, 토석판축, 교전판축, 장대석, 생석회잡석다짐)을 사용하여 다지고 초석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지붕공사 시공

(1) 기와지붕 시공

임원경제지 섬용지에는 중국에서 여러 겹의 갈대자리(蘆簟)를 깔고 기와를 쌓으며, 회(灰)를 사용하여 기와 틈을 메우는 기법을 조선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조선에서는 큰 기와를 진흙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진흙의 하중으로 인해 기둥이 휘고 진흙이 마른 뒤 발생하는 틈으로 바람이 들거나 참새, 쥐, 뱀, 고양이 등이 침입하는 양상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서까래 위에 산자를 깔되 산자 위에 흙 대신 대팻밥으로 틈을 메우고 그 위에 기와를 맞물리게 쌓은 뒤 회백토를 바르는 건기와(乾蓋瓦)법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의 기와지붕 공사는 기와나누기 → 연암치목 → 연암설치 → 기준실치기 → 기와운반 → 알매흙·홍두깨흙 비빔 → 알매흙 채우기 → 암키와이기(받침장놓기 → 암막새이기 → 암키와이기) → 홍두깨흙채우기 → 수키와이기(수막새이기 → 수키와이기) → (회첨골이기) → 너새이기

→ 기와청소의 순서로 진행되며, 우진각지붕이나 사모정 등은 너새이기 공정이 생략된다.

(2) 초가지붕 시공

초가지붕 시공은 볏짚을 서너 다발로 묶어 차례차례 지붕을 덮는 방식이다. 섬용지에는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지붕을 둘러매고 새끼줄 끝을 서까래 끝에 매도록 했는데, 비에 썩거나 바람에 뒤집어져 매년 교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갈대가 나는 지방에서는 갈대를 이용하여 지붕을 엮는데, 이는 볏짚에 비해 상당히 내구성이 있어 대체 재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의 초가지붕 시공은 알매흙 비빔을 위해 진흙에 생석회와 마사 대신 약 6-9cm로 볏짚을 잘라낸 짚여물을 짓이겨 사용하고, 지붕물매 곡선을 중심으로 평탄하게 흙치기가 이루어진다. 흙치기를 통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지면 군새깔기-기스락 보강의 공정을 거친 뒤 처마마름과 이엉, 용마름 엮기를 통해 지붕을 조성하고 겉고살동이기를 통해 마감한다.

이엉 엮기는 볏짚의 밑동을 평평하게 하여 엮어나가는 3겹이기 방식으로 서너 가닥씩 날을 상하로 엇갈면서 엮고, 용마름 엮기는 0.9-1.2m 가량의 볏짚을 사용하여 중앙의 새끼줄을 좌우에서 교대로 엮어 밧줄처럼 감아나가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겉고살동이기는 엮는 방법에 따라 가로형 동이기, 격자형 동이기, 마름모형 동이기와 용마름 동이기로 구분하여 매는 방법을 나열하였다.

(3) 기타 지붕 시공

섬용지에는 일부 산간 지방 민가에서 이용되는 석판(石板) 지붕을 소개하였다. 이는 기와지붕에 비해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으며, 거주기능이 중요하지 않은 창고나 광, 뒷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너와지붕과 굴피지붕의 시공방법이 제시되었다. 너와지붕 시공은 서까래 위에 가로목을 걸친 뒤 바로 너와를 여러 겹으로 겹쳐 포개는 방식으로 처마끝을 기준으로 가지런하게 잇되, 중간부터는 부정형으로 하였으며,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용마루와 처마 끝 부분을 통나무 등 누름대로 고정하였다. 굴피지붕 시공은 여름철 굴피를 채취한 뒤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굴피를 3-5겹 겹쳐 잇고 까치구멍을 두어 환기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3) **뜰(정원) 시공**

(1) 포장 시공

임원경제지 섬용지에는 마당(뜰)을 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높낮이가 평탄해야 하고, 담장과 마당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네 모퉁이가 평탄하고 반듯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당에는 검은 흙덩이가 거칠고 잡초가 많이 나거나 비올 때 붉은 점토가 미끄럽거나 배수가 불량하여 도랑을 이룰 경우에는 뜰 전체의 흙을 걷어내고 기와조각과 자갈을 한 겹 깐 뒤 굵은 모래와 백토를 깔고 달구로 다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바닥에 벽돌이나 조약돌 등을 빼곡하게 박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조선의 경우 벽돌이 귀하여 뜰 안까지 벽돌을 깔지 못하기 때문에 문으로 난 길이나 섬돌 아래 등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조약돌을 까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조경공간 내 포장 방법으로 황토나 마사토다짐 등 전통재료를 주통로의 포장재료로 밝히고 있으며, 진입로는 자연친화적 포장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흙다짐 하부에는 잡석기증을 하여 배수를 고려하였으며, 소성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경관성을 고려하였다.

(2) 화계 시공

화계의 시공에는 섬용지에 서재 남쪽과 북쪽 뜰의 담장 아래에 돌을 쌓아 계단을 만들고 여기에 화훼를 심고, 분경을 진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땅의 높낮이에 따라 계단을 최대 삼단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궁궐에는 장대석을, 민가에는 해당 지방에서 산출되는 자연석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석조물, 괴석, 화초와 관목류 혹은 소교목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화계의 뒤채움은 화계에 도입되는 수목에 따라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조경시설 시공

섬용지에는 붕가(棚架)라고 하여 시렁의 조성을 수록했는데, 장방형의 틀에 공(廾)자형 살을 짜고 나무널판이나 유둔(油芚, 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 먹인 종이를 여러 겹 두껍게 붙인 종이), 버드나무 껍질 등을 덮은 차양과 포도·초송(艸松)을 심고 시렁을 만들어 햇빛을 가리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수목의 굴취, 운반, 전정, 식재 등의 수목공사와 잔디·초화류 식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못은 수량 유지, 입수체계 보호, 누수 보강, 외부 물질 유입 방지 등 유지관리 수준의 항목들이 제시되었다.

4) **담장공사 시공**

임원경제지 섬용지에는 담장 시공과정 중 기초를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꼽았다. 땅을 다지는 방법은 앞서 기초공사의 내용과 동일한 방법을 쓰며, 돌을 쌓을 때에는 돌의 크기와 두께에 관계없이 위아래가 평평하도록 하여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에 돌을 쌓는 높이는 지하로 한자, 땅 밖으로 두자 정도로 그 위에 담을 쌓도록 하였다.

섬용지에서는 담장의 벽면 재료에 따라 토담, 돌담, 영롱장, 판장으로 분류하였으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토담, 돌담, 토석담, 와편담, 전돌담, 판축담, 판장으로 구분하고, 문양에 따라 화초담, 화문담, 영롱담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1) 토담 시공

토담의 조성은 섬용지에 기초 위에 진흙과 볏짚을 섞어 서너 치의 높이로 쌓은 뒤 반쯤 건조하여 삽으로 안팎의 면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완전히 말린 뒤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한길 반 높이로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공정을 용이하도록 판축(板築) 방법이 사용되었다. 판축법은 서너 치 높이의 나무틀을 두고 그 안에 돌과 흙을 반죽하여 삽으로 안팎의 면을 깎아내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형적인 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흙 또는 흙에 잔돌이나 기와편을 섞어 쌓는 방식으로 흙을 벽돌처럼 뭉쳐서 쌓거나, 잔돌이나 기와편을 섞어 쌓을 때에는 이들을 각각 한 켜씩 번갈아가면서 쌓도록 하였다. 또한 담을 쌓을 때 거푸집을 설치하고 30cm 두께로 흙을 채워넣고 달고 등으로 다지는 방법은 섬용지에서 제시한 판축방법과 동일하였다.

(2) 돌담 시공

섬용지에 의하면 돌담은 진흙과 돌을 서로 번갈아 쌓아 올려 어깨 높이 이상이 되면 깨진 기와를 이용하여 쌓아 올리도록 하였다. 여기에 석회와 백토를 섞은 반죽을 움푹 들어간 곳에 바른 것을 분장(粉牆)이라 하는데, 이 흰 무늬가 보기에도 좋고 내구성 또한 좋다고 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거친돌담쌓기, 사괴석담쌓기, 돌각담쌓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하부에는 큰 돌을, 상부에는 점차 작은 돌을 사용하여 담을 쌓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돌 사이에는 별도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는 일부 진흙에 생석회를 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 영롱담 시공

섬용지에서 영롱담은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으로 어깨 높이 이상의 담장에 기와를 잘라 물결무늬, 고리모양, 고로전 문양 등을 만든다고 소개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와편담쌓기 공정 중에 포함되어 있다. 와편담에는 와편만으로 쌓은 것과 꽃무늬, 완자무늬, 길상무늬 등을 조합하는 방식이 있으며, 영롱담의 시공은 섬용지의 시공기법과 유사하였다.

(4) 판장 시공

섬용지에 의하면 판장은 기둥 사이에 인방을 두고 인방 하부에는 자갈과 부서진 기와를, 인방에서 보까지에는 널판을 배열하여 담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판장의 조성 길이는 지세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로 문으로 향한 길을 막거나, 내외를 구별할 때 사용하였다.

반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 언급하는 판장은 받침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로 띳장을 걸고, 널판을 대는 방식은 동일하나, 인방 하부에 자갈과 부서진 기와를 넣지 않고 벽면을 단청안료로 도색하는 것으로 보아 섬용지에서 소개한 것과는 다른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담장 시공

섬용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 포함하는 담장의 종류에는 토석담, 전돌담이 있다. 토석담은 면을 가공하지 않고 쌓은 담장으로 석축 상부에 담을 쌓을 경우 담장 하부를 석축 안쪽으로 들여쌓기 하고, 흙과 돌이 맞물리도록 쌓는 방식이다. 전돌담은 담장 전체를 전돌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르게 쌓기와 볼록줄눈이 적용되었다.

3. 종합고찰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대상으로 전통조경공간 시공에 적용되는 분야별 시공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이를 토대로 과거의 시공방식과 현재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시행되는 정비방법은 시공의 범위, 전통조경공간의 장소성 변화, 전통지식의 계승과 제구성 등의 특성으로 집약된다.

1) **시공의 범위 설정**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포함된 전통조경공간의 주요 공정은 유사한 체계를 지니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 범위나 관점에서 일부 차이점이 확인된다.

일례로 섬용지에서 언급한 석판지붕은 오늘날 그 사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너와지붕과 굴피지붕의 시공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특정 지방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조선시대 가옥 조성에 대한 제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서술특성 상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시공기법은 제외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섬용지는 시렁과 차양의 조성방법을 제시했는데, 특히 차양에 사용되는 재료는 나무널판뿐만 아니라 유둔이나 버드나무 껍질 등 다양한 소재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렁은 두 개의 막대에 덩굴성 식물을 심어 조성하는 시설로 식

물이 자라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일정 공사기간 내에 시공이 완료되는 문화재 수리의 특성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시렁의 조성에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석담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섬용지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담장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돌담은 주로 궁궐에 조성되는 담장으로 일반 민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섬용지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계 조성 시에도 섬용지에는 민가 가옥 조성을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의 조성을 밝히고 있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궁궐과 민가의 정원을 구분하여 재료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자료의 저술동기와 관련지을 수 있는데,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전통조경공간의 표준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거주자가 직접 가꾸어나가는 생활공간으로서 시공기간의 제한이 확인되지 않았다. 임원경제지 섬용지의 서문에 '사람마다 제 스스로 수량과 공법을 계량하여 제멋대로 각자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 결과 즐비한 집마다 하나도 법에 맞는 것이 없다[12]'라고 하여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서 정량화된 지침을 제공하려 했던 의지를 표명하였다.

반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문화재 수리현장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시공자가 참여하는 공기(工期)가 한정되어 일정 기간 내 시공할 수 있는 공정들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가 전통공간의 역사성, 지역성, 특정 양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통일 표준형 보수'로 비판하기도 하지만[14], 전통조경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정과 순서를 제시하여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문화재수리 시방서 작성준칙으로 적용하고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문화재수리 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전통조경공간의 장소성 변화**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각각 실제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조성과 오늘날 문화재로서의 유지관리라는 관점과 장소성의 차이로 인해 시공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가 확인된다.

임원경제지 섬용지의 잡석다짐 후 모래와 백토를 다지는 마당 포장 방식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도 황토나 마사토 다짐에 앞서 잡석다짐을 실시하는 공정이 유사하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마당의 포장방식 외에 문화재 주변지역 및 관람동선 등의 공간에 블록을 사용할 때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점이 추가되어 문화재 공간의 원형유지와 함께 관람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시공방법을 달리하였다.

한편,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 제시한 시공방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시설의 신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기 조성된 시설의 보강과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시공 시점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화계는 전통조경공간의 주요시설 중 하나로 섬용지에서는 단을 쌓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화계에 배치되는 석물이나 수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섬용지에서 화계를 조성하기 위한 단의 배치가 시공을 위한 공정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기 조성된 석단에 점경물을 배치하여 화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전통지식의 계승과 재구성**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일부 공정에서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유사한 기법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과거의 시공방식을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특정 공정을 추가하여 시공효과를 보완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등 전통지식의 계승이 이루어진 사례라 하겠다.

기초공사의 경우 땅을 파서 다지고 물을 뿌린 뒤 흙을 다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토양 사이의 공극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단, 땅고르기가 시행되는 토심은 임원경제지의 경우 약 1.5m 가량을 제시하였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생토면 또는 동결심도 이하로 설정하였다. 임원경제지에서 제시한 토심의 깊이는 일반적인 가옥 조성 시 요구되는 정도로서 경험의 축적에 따른 정량적 수치의 제시로 볼 수 있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토심은 각 문화재 수리현장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한 범위 설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다져진 땅에 바로 주춧돌을 놓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오늘날 문화재수리 현장에서는 지정을 사용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토담의 시공은 섬용지에 진흙과 볏짚을 섞은 반죽을 쌓은 뒤 입면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건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도 한 켜씩 쌓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판축의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과거의 기술이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영롱담 또한 기와의 단면을 사용하여 무늬를 만드는 방식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과거의 시공방식과 오늘날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특히 접착제의 사용은 소재와 배합방식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기와지붕은 연암이나 산자 위에 기와를 놓는 방식과 기와를 깔고 접합체를 사용하여 지붕을 덮는 방식이 동일하나 접합체의 배합방법은 다르게 확인되었다. 섬용지에서는 진흙으로만 접합할 경우 진흙이 마른 뒤 생기는 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

해들을 우려하여 대팻밥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언하기도 했는데,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오늘날 기와지붕 시공에는 진흙과 석회, 마사(풍화토)를 물과 섞어 배합한(1㎡ 당 진흙 0.3㎥, 생석회 78kg, 마사 0.3㎥) 알매흙과 홍두깨흙을 각각 암키와와 수키와의 고정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섬용지에서 비판했던 사항으로 진흙 접착에 따른 기와의 흘러내림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기와의 끝에 와구토를 바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초가지붕은 볏짚을 묶어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섬용지에서는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볏짚다발을 두르고 새끼줄 끝을 서까래 끝에 매는 방식으로 마감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도 볏짚을 얹어 지붕을 두르는 방식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볏짚 다발을 두르기에 앞서 진흙과 잘게 자른 짚여물을 혼합하

Table 2. A Comparison of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Imwongyeongjeji』「Seomyongji」and the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Division			『Imwongyeongjeji』「Seomyongji」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Foundation Work			Repeat the process of spraying the ground with Water and then tramping it with a rammer	
			Suggestion of how to stack the stone pillars into several layers and place the foundation stones on them	Set the depth of the ground to less than the freezing depth
Roof Construction	Tile Roof		Place lattice sticks on top of rafters, fill gaps with shaving instead of soil, stack tiles together and apply mixed lime and white clay on top of them.	After mixing the soil, join it with a concave tile and then fill it with soil to join it with a convex tile
	Thatched Roof		Tie up rice straw in sheaves and three or four bundles to cover the roof	Fodder mixed with mud and weave a thatched rice straws on the roof
	etc.	Stone Plate Roof	To cover(a stone plate) with a roof, such as a warehouse or a back door	-
		Single Roof	-	The rafters are laid out with multiple layers of single wood to make a roof
		Bark Roof	-	In summer, they collect barks, dry them, and then overlay them into three to five layers to make a roof
Landscaping Work	Paving		If there is a lot of weeds or poor drainage, remove the soil from the whole garden, spread pieces of tile and gravel, spread thick sand and white soil, and chop it with a rammer	Loess or soil cement is used mainly and mixed stones are laid under the soil to ensure good drainage. When a block is used, it shall be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Terraced Flower		Stone platforms under the fence to make two to three steps and place flowers or flower pots here	When making a stone platform in a palace, use square stones and when making it in a private house, use natural stones from that province. A stone platform in shaped stones and placing flowers and shrubs. Inside the stairs, the roots must have space for growth according to the planted trees
	etc.	Eaves	Make a square frame and cover it with wooden boards, greased paper, and bark	-
		Wall Shelf	Grapes and other creepers are allowed to climb up the wooden pole	-
Wall Construction	Earthen Wall		The process of mixing mud and rice straws, drying them, and cutting them flat with a shovel is repeated	To pile up(a piece of stone or tile) in the soil. The soil may be stacked together like bricks
			For the method of wall-building(板築), a wooden frame was set up, and the mixed with stone and soil was filled in to make it easier to build	
	Stone Wall		Mud and stones are stacked alternately, and when they are above shoulder height, they are stacked using broken tiles	Place a large stone at the bottom, and gradually make a wall with a small stone at the top. When the structure is weak, add lime to the mud
	Marble Wall		Cut and stack tiles to make wavy patterns, rings, etc.	
	Board Wall		Place a tree that crosses between the pillars, and lay gravel and broken tiles beneath it, and cover a plank on top of the tree	Place a column on a pedestal, cover the wall with a plank, and color it
	Soil-Stone Wall		-	Stack soil and stone meshed together on a stone shaft
	Brick Wall		-	Brick up the entire fence

고 지붕물매 곡선을 중심으로 흙치기를 통해 양생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이와 같이 지붕 접합체의 재료와 배합방식의 차이는 재료 확보의 용이성과 상시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와의 경우 과거 진흙만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팻밥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 석회나 마사토 등을 배합하는 방식은 과거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료를 구하기 용이하며 옛 시공기법을 대체할 만한 보다 효율적인 배합방식이 개발되어 이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가지붕의 경우 과거 초가지붕의 조성 이후에는 매년 이엉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의 수리는 매년 이엉을 교체하기에 예산의 분배나 관리인력 투입을 통한 상시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엉잇기 공정에 접합체를 사용하여 초가지붕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돌담을 쌓는 방식으로 섬용지는 돌 사이에 진흙을 섞는 방식으로 벽면을 구성하였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는 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만 일부 진흙에 생석회를 배합하여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돌의 형태를 골라 쌓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섬용지에 제시된 돌담은 오늘날 토석담과 돌담이 절충된 형태로 보여지는데, 오늘날 전통조경공간에는 토석담의 공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 돌담과 토석담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담의 시공은 가능한 기존 돌담 부재 또는 돌만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전통지식의 계승 관점에서 과거의 전통조경공간의 설계시공과 오늘날 이를 유지 계승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및 정비 등의 시공방법을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서술방식,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 추출, 시공방법(기초공사, 지붕공사, 정원조성, 담장공사) 등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서술방식 및 전통조경 분야 관련 공정을 살펴본 결과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생활공간 전반의 시공방법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서로 중국과 조선의 제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제도 중 선용할 만한 기법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별 시공방법의 사용처, 효과, 장·단점을 서술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전통조경공간 시공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문화재 수리의 공정 전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통조경시설의 조성뿐만 아니라 수리와 정비를 포함하여 해체와 재조립, 조사, 용어정리의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사례별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또한 두 자료의 공정들을 비교한 결과 기초공사,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이 전통조경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전통조경공간 시공방법을 기초공사와 지붕공사, 조경공사, 담장공사 등의 공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기초공사는 대지를 다지고 평탄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초를 조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공사 중 기와지붕 조성은 서까래 위에 산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진흙을 접착제로 기와를 쌓았으며, 초가지붕은 볏짚을 여러 다발로 묶어 차례로 지붕을 덮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기타 석판지붕은 얇고 넓은 돌을 기와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며, 너와지붕은 나무판자를, 굴피지붕은 건조시킨 굴피를 여러 겹 까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조경공사는 주로 잡석다짐을 통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포장기법과 여러 단을 조성하고 상부에 석물이나 화초나 관목 등을 식재하는 화계 조성기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장공사는 쌓는 재료에 따라 판축방법을 활용한 토담 쌓기, 돌과 진흙을 사용하여 담을 조성하는 돌담 시공, 기와의 단면을 활용하여 무늬를 형성하는 영롱담 조성, 널판을 벽면으로 사용하는 판장 시공 등이 소개되었다.

셋째,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시공방법을 비교해보면, 시공의 범위 설정, 전통조경공간의 장소성 변화, 전통지식의 계승 및 재구성 등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임원경제지 섬용지는 전통조경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시공방법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현장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시공의 절차를 제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장소성 측면에서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는 일상거주공간으로서 전통공간의 조성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는 문화재 지역으로 원형유지와 함께 관람환경의 조성까지 시공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전통지식의 계승 차원에서 과거 전통조경공간을 조성하는 기법 중 시공의 절차나 세부 공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날 문화재 수리를 통한 전통조경공간 시공방법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일정 부분 전통조경공간 시공을 위한 전통지식이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접착제의 소재나 배합방식, 후대에 포함된 시설의 구분,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법 도입 등 일부 재구성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원경제지 섬용지에 제시된 전통지식과 오늘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서 지침으로 삼은 공정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을 토대로 어느 기법이 우세하다는 가치판단은 어렵다. 다만 오늘날 일부 전통기술들을 계승하고 있고, 관리주기나 예산의 분배 등을 고려하여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을 추가하거나, 전통조경공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특성들은 해당 전통조경공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간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해 왔던 전통공간을 설계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으나 연구의 재료가 임원경제지 섬용지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조경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이 한정적이며, 설계시공방법에 대한 이론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차후에는 보다 많은 시공 관련 문헌의 발굴과 실증적인 시공방법의 비교를 통해 전통조경시공 분야의 연구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출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1] E-People Service https://www.epeople.go.kr

[2] Kwon, J. Y.(2003). Traditional Knowledge: Its Concepts and Protection Methods.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14(-):31-54.

[3] Bae, D. H.(2005). International Issues on the Legal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 Traditional Knowledge.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18(-):1-40.

[4] Sohn, J. Y.(2016). Korea's Protection Strategy for it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1(3):95-132.

[5] Kim, B. I.(2004). A Study on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 Traditional Knowledge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 Brief on Foreign Laws. 26(-):143-168.

[6] Kim, K. S. and Lee, J. K.(2014). A Study on Garden Construction in 「ImwonGyeongjeji」.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1):22-30.

[7] Kim, D. J.(2014). Seo Yu-Ku(徐有榘)'s Space-Thinking represented in Yi-Wun-Ji(怡雲志). Hankukmunhwa. 68(-):27-60.

[8] Shim, M. J.(2019). A Study on the Yi-Wun-ji(怡雲志)'s Agricultural Space. Korean Cultural Studies. 36(-):119-152.

[9] Kim, K. S.(2013). A Study on Seo Yu-gu Perspective on Nature and Garden Construction in Joseon Dynasty. Dcotoral thesis of Sangmyung University.

[10] Lee, K. M.(2010). A Bibliograph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Dealing with Architecture in the Chapter of Seomyongji of Imwongyeongjeji.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1(4):59-69.

[11] Cha, S. Y. and Chang, D. W.(2012). A Study on the Costume View of Seo Yu-G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6): 80-97.

[12] Seo, Y. G.(Author) Ahn, D. H.(Translate)(2013). Build a House in the Mountainside. Paju; Dolbegae.

[1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e(2019).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e.

[14] Lee, H. B.(2014). Cultural Heritages, Let's save them properl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3(2):93-107.

원 고 접 수 일: 2019년 11월 28일
심 사 일: 2019년 12월 3일 (1차)
: 2019년 12월 7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9년 12월 7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